

## 청소년의 문화성향에 따른 교우간 갈등해결 전략

최태진\*

###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교우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성을 탐색하는 한편 이들 문화성향에 따라 구분된 하위집단간에 갈등해결전략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도입하여 문화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틀로 사용하였다. 남녀 중학생 557명을 대상으로 갈등해결전략 척도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INDCOL)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상관분석, 이원분산분석, 교차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전략은 개인주의 성향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집단주의 성향과는 극히 낮거나 상관이 없으며, 협력전략은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성향과 보다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문화성향별 집단을 비교한 결과 1) 수직적 집단주의자는 수직적 개인주의자 보다 회피전략이 높으며, 2) 수평·수직 개인주의자들은 수평·수직 집단주의자들에 비하여 지배전략이 높고, 3) 수평적 집단주의자는 수직적 개인주의자 보다 양보전략이 높았다. 셋째, 문화성향 유형과 갈등해결전략 유형을 교차분석한 결과, 개인주의 성향자는 지배전략유형, 수평집단주의 성향자는 협력전략유형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평적 집단주의자가 협력전략이나 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하여, 비록 현저성이 아주 높진 않으나 수직집단주의자는 협력, 회피전략 뿐만 아니라, 지배전략, 양보전략까지(특히, 여학생) 다양하게 채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시사점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교우갈등, 갈등해결전략, 문화성향, 개인주의-집단주의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 I. 서 론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우간 폭력, 따돌림 현상은 교우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그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이러한 폭력의 원인 중의 하나로서 개인의 과도한 분노, 높은 충동성, 낮은 자존감, 불안 등 주로 심리적 특성이나 성격과 같은 내적요인으로 진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 이미경, 1995; 이시형, 199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Olweus, 1993; Sharp & Smith, 1994). 그러나 이와 같이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진단의 경우 실제적인 도움이나 처방의 제공이라는 방략은 실용적인 가치에서 볼 때 그 효용성이 낮음이 사실이다. 심리 내적 특성들은 단기간에 교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사회적 기술로서 대인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과 다양한 갈등해결 전략을 가르치는 것은 장기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적 조치와 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력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수혜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실효성과 함께 예방적 효과 또한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이어지는 충돌현상이란 결국 즉각적이면서도 상황에 적절한 갈등해결전략의 부재와도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인간 갈등해결 전략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선행 연구를 두 가지로 대별하면, 하나는 Kilmann과 Thomas(1974) 이후 근래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로 갈등해결양상이나 해결전략의 형태(예, Alexander, 2000; Crawford & Bodine, 1996; Feldman & Gowen, 1998)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갈등해결 양상 혹은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변인을 탐색하려는 연구(박미진, 2002; 배선영,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Corcoran & Mallinckrodt, 2000; Dekovic & Janssens, 1992 등)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갈등해결전략을 규정하고 이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강상무, 1999; Alexander, 2000; Lane & McWhirter, 1992)보다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연구가 많은 이유는 갈등이란 것 자체가 긍정적·부정적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대인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형태와 해결양상 그 자체를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상기한 두 주제 중 특히 후자에 초점을 두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각 개인이 지니는 문화성향(cultural disposition 혹은 문화가치체계)이라는 변인을 도입하여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및 문화성향에 따른 차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문화성향이란 ‘한 사회내에서 개인이 지니는 신념, 태도, 자기정의, 규준과 가치의 패턴’(Triandis, 1989, 1995)을 가리킨다.

연구를 위한 문제제기를 위해 먼저 갈등의 의미와 갈등현상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갈등해결전략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한 다음, 본 연구에서 문화성향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전형적으로, 갈등이란 대인관계에서 목표, 기대 혹은 상대방에 대한 바람의 불일치로 빚어지는 상호간의 대립(Collins, Laursen, & Mortensen, 1997; Jensen-Campbell, Graziano, & Hair, 1996), 혹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다양한 친사회적·반사회적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Malloy & McMuray, 1996) 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갈등은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Corcoran 과 Mallinckrodt(2000)는 갈등이란 것이 자칫 쌍방간의 폭력으로까지 이어져 대인관계와 조직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높으나, 갈등은 내재적으로는 긍정적인 것도 아니요 부정적인 것도 아니며 변화와 성장의 자연적 과정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갈등이 저항사태이긴 하나 때로는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갈등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알려져 왔다. 이는 첫째, 비록 갈등이란 것이 삶의 전체 과정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청소년기는 특히 ‘파괴적 갈등의 시기’(destructive conflict)(Laursen & Collins, 1994)로 불리기 때문이며, 둘째,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기의 갈등이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유효한 과정일 수 있으며 나아가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을 습득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더불어 청소년기가 갈등양상은 성인기의 갈등해결 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Alexander, 2000)는 이유 때문이다.

갈등해결방식 혹은 갈등해결전략과 관련하여 많은 유형 분류 방식이 제안되어 왔다. Feldman과 Gowen(1998)의 5가지 책략(절충, 사회적 지원추구, 회피, 소동, 분노 표출), Alexander(2000)의 3유형(절충형, 공격형, 회피형), Crawford와 Bodine(1996)의

3유형(부드러운 유형, 딱딱한 유형, 원리원칙적 유형) 등이 그것이다. 대체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갈등해결전략 유형 구분은 Kilmann과 Thomas(1974)에 의해 최초 분류되었다가 나중에 Rahim(1983, 1986)에 의해 수정된 5유형이다: 협력(integration), 절충(compromising), 회피(avoiding), 양보(obliging), 지배(domination) 전략이다. 이들 전략은 개인이 갈등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협력’은 상대 양쪽 모두에 대해 관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양쪽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절충’은 양쪽이 모두 어느 정도씩은 포기하고 각자의 관심을 조절함으로써 상호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성취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양보’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낮고 상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상대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말하며, ‘지배’는 자신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고 상대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승-패 지향적이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다만, 절충과 협력은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교우관계 같은 비형식적이며 친근한 사이에서는 덜 분화한다(Hammock, Richardson, Pickett & Utley, 1990)는 이유로 종종 동일한 것으로 묶여서 분류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갈등해결 방식 혹은 전략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관련 변인을 찾는데 집중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들은 주로 갈등해결 전략의 사용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의 영향(Corcoran & Mallinckrodt, 2000; Dekovic & Janssens, 1992; 김지현, 2002; 이희영·천태복, 2005; 장휘숙, 2000; 정미현, 2002; 하지원, 2004)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외 사회적 유능감(Corcoran & Mallinckrodt, 2000), 형제관계(박미진, 2002), 지도성 기술(최창욱·김진호, 2004) 등이 관계되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에 관한 연구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될수록 조정이나 타협을 잘하며, 친사회적 갈등해결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요인을 관계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들이 갖는 제한점을 진술하면서 본 연구에서 문화성향을 관련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함께 그 근거를 차례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모 양육태도 변인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측정하기 보다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규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요인으로 갈등해결 양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사실상 부모의 특정한 양육태도와 애착으로 인하여 자녀가 어떠한 내적특성에 영향을 미침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내적특성이란 자녀의 신념이거나 내적규준, 태도, 자기관, 동기, 귀인성향, 대인관계의 양상 등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결과적으로 자녀 혹은 청소년이 보이는 갈등해결 양상의 차이란 궁극적으로 자기화된 내적규준, 태도, 자기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렇게 본다면 자녀의 갈등해결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 혹은 애착요인의 차이는 당사자인 자녀의 신념, 내적규준, 태도, 자기관, 동기 등을 직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연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화성향이란 갈등해결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설득력있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언급한 것처럼, 문화성향이란 한 사회내에서 개인이 지니는 신념, 태도, 자기정의, 규준과 가치의 패턴(Triandis, 1989, 1995)이며, 행위자의 사고의 형태, 신념, 자기관, 대인교류 양상, 사회행위의 원동력(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89, 1995; 조궁호, 1996; 한규석, 1991)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성향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틀은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차원이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5, 2001; Triandis & Gelfand, 199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이 관점에 의하면 문화간 뿐만 아니라 동일 문화권내에서도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주의 성향자는 자율성, 독립심, 개인의 목표와 신념 중시, 개인적 만족의 추구, 집단의 결속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정서적인 거리감 등(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을 특징으로 하며, 집단주의 성향자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갖고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써 파악하며, 집단의 원활한 결속에 대한 깊은 관심을 지니며, 집단의 정체감에 동화된 사회적·개인적 정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의존성 및 집단의 통합과 조화, 건전한 대인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Hofstede, 1991; Hui & Triandis, 1986; Triandis et al., 1988). 국내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여러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개인간 비교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예, 정미숙, 2001; 최태진, 2004a, 2004b; 한규석·오점조, 1993; 한성열·이홍표, 1995) 그 결과 개인차 비교

를 위한 유용한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갈등해결 양상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보면, 집단주의자에게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은 고도의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개인적 성취와 소망을 넘어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마저 보인다(Triandis, 1989; Triandis et al., 1988). 결과적으로 집단주의자들은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집단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를 지배하도록 허용한다(Chew & Lim, 1995; Goldenberg, 1988). 이에 몇 연구들은 집단주의자들이 대인갈등장면에서 수용과 회피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본다(Ting-Toomey, 1988; Trubisky, Ting-Toomey & Lin, 1991).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자들은 개인간 연대가 느슨하며, 개인의 욕구와 목표가 주관심사로서 관계성을 넘어 자신의 결과를 추구하는 경향성을 갖는다(Triandis, 1989; Triandis et al., 1988).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은 갈등해결 양상에서 경쟁적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ahim(1992)은 이와 관련하여 갈등장면에서 개인주의자들이 보다 경쟁적이거나 지배적인 스타일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Ohbuchi, Fukushima와 Tedeschi(1999) 또한 갈등상황에서 집단주의자들은 일차적으로 관계성을 파괴하지 않는 갈등해결방식(예, 중재)을 더 선호한다고 보았으며 반면 개인주의자들이 만약 성인이려면 분쟁해소를 위해 기꺼이 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 개인의 갈등해결전략이 문화성향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두 변인간의 상호관계성 및 문화성향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의 채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언급해 둘 것은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성향자 내에서도 변형이 있다는 점이다. Triandis(1995)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 수평적-수직적(horizontal-vertical) 차원을 부가한 바 있다. 수평적이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하며, 수직적이란 불평등을 수용하며 위계질서를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수평 개인주의, 수직 개인주의, 수평 집단주의, 수직집단주의로 세분화된다고 하겠다. 수평적 개인주의자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고, 수직적 개인주의는 경쟁적이며 남을 이기는 것을 중시한다. 반면 수평적 집단주의자는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우선하며, 수직적 집단주의자는 집단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성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수평-수직의 차원은 문화성향에 따른 갈등전략의 차이를 보다 구체화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인용한 선행연구들(Ohbuchi et al.,

1999; Rahim, 1992)의 경우 이러한 차원은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수직차원을 함께 고려하여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중학생들이 지니는 문화성향과 갈등해결 전략과의 일반적인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문화성향에 따른 집단간에는 갈등해결 전략에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문화성향 유형 대 채택하는 갈등해결전략 유형간의 대응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G중학교 1, 2, 3학년 학생 전체를 임의표집으로 하여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G중학교는 인근의 4-5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으며, 지역의 여건으로 미루어 이들 학생의 부모들 또한 어느 정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의 수집은 해당 중학교 교사의 협조를 얻어 집단검사로 이루어졌다. 최초 인원수는 575명이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18부를 제외하여 557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이 288(51.71%)명, 여학생이 269(48.29%)명이었으며, 1학년이 178명(31.96%), 2학년이 190명(34.11%), 3학년이 189명(33.93%)이었다.

### 2. 측정도구

#### 1) 갈등해결전략 척도

중학생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혜, 고윤주와 오원정(2000)의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ahim(1986)의 갈등해결전략 척도에 기초하여, Mendelson, Goldbaum과 Semeniuk(1995)가 제작한 친구관계 질문지-갈등해

결방식을 번안한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공식적인 친밀한 사이에서는 절충과 협력이 덜 분화된다는 주장(Hammock, Richardson, Pilkington, & Utley, 1990)에 따라 절충과 협력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4가지 전략(회피, 지배, 양보, 협력 및 절충)에 대하여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이 측정하는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영역과 비슷하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도 계수( $\alpha$ )는 회피, 지배, 양보, 협력과 절충(이하 협력이라는 용어로 사용)에 따라 차례대로 .59, .71, .70, .56이었다.

## 2)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

개인주의-집단주의는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 (1995)에 의하여 개발된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를 최태진(2004a)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4가지의 하위척도(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로 구성되며, 하위척도별 각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되어 있다. 응답은 7단계 리커트 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이루어진다. 문화성향 유형은 각 하위 성향별로 점수를 산출한 다음, 보다 높은 점수를 지니는 차원에 따라 구분된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도 계수( $\alpha$ )는 차례대로 .68, .71, .70, .66이었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별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학생들이 지니는 수평·수직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과 갈등해결 전략과의 일반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여를 구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문화성향에 따른 집단간 갈등해결 전략별 차이검증을 위해서는 문화성향(4)×성별(2)에 따른 이원분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일차적으로 성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예, Chung & Asher, 1996; 배선영, 1999). 문화성향에 따른 집단별 채택하는 갈등해결전략 유형간의 대응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빈도를 산출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통계치는 .05의 수준에서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자로 참여한 중학생들의 문화성향별 분포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50.4%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21.3%),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17.0%),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11.3%)의 순서를 보였다. 남여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대체로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하여 수직적 집단주의 비율이, 여학생은 수평적 집단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문화성향별 분포

	개인주의 성향		집단주의 성향		전체	x <sup>2</sup>
	수평개인	수직개인	수평집단	수직집단		
남학생	25( 9.8)	45(17.6)	120(47.1)	65(25.5)	255(100.0)	6.84
여학생	31(13.0)	39(16.3)	129(54.0)	40(16.7)	239(100.0)	
전체	56(11.3)	84(17.0)	249(50.4)	105(21.3)	494(100.0)	

#### 1. 문화성향과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연구문제1에 따라 문화성향과 갈등해결 전략과의 일반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여에 따라 하위요인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전체대상의 결과를 보면 지배전략은 집단주의 성향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반면(수평집단  $r=-.01$ , 수직집단  $r=.13$ ), 개인주의 성향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수평개인  $r=.36$ , 수직개인  $r=.36$ ), 이러한 관계는 남여학생 모두에서 유사하였다. 반면 협력전략의 경우 모든 성향과 어느 정도의 정적관계를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성향과 보다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보다 현저하였다(수평집단  $r=.42$ , 수직집단  $r=.40$ ). 회피 및 양보 전략의 경우, 개인주의 성향과는 관계가 없음을 그리고 집단주의 성향과는 다소 낮은 정적관계가 있음을 보였는데, 다만 회피전략의 경우에는 수직집단주의 성향과 어느 정도 관계를 고려할 만한 수준의 상관크기를 보여주었다.

<표 2> 문화성향 하위요인과 갈등해결 전략 하위요인간 적률상관

구분	갈등해결전략	개인주의 성향		집단주의 성향	
		수평개인	수직개인	수평집단	수직집단
전체	회피전략	.07	.07	.16**	.24**
	지배전략	.36**	.36**	-.01	.13**
	양보전략	.04	.05	.14**	.13**
	협력전략	.29**	.27**	.38**	.30**
남학생	회피전략	.17**	.09	.21**	.22**
	지배전략	.42**	.34**	.04	.06
	양보전략	.10	.10	.14*	.10
	협력전략	.29**	.30**	.35**	.19**
여학생	회피전략	-.04	.05	.12	.25**
	지배전략	.31**	.38**	-.05	.18**
	양보전략	-.03	-.01	.15*	.13*
	협력전략	.28**	.23**	.42**	.40**

\* $p<.05$  \*\* $p<.01$

## 2. 문화성향에 따른 집단간 갈등해결 전략의 차이

연구문제2에 따라 문화성향으로 구별되는 4개 집단간 갈등해결 전략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성향(4)×성별(2)에 따른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이에 따른 기술통계량과 사후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회피전략과 지배전략 그리고 양보전략은 문화성향에 따른 4집단간 및 성별에 따른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전략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모두에서 문화성향과 성별

에 따른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의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회피전략은 수직 집단주의 성향자들이 수직 개인주의 성향자들에 비하여 높으며, 지배전략은 개인주의 성향자들이 집단주의 성향자들보다 높고, 양보전략에서는 수평 집단주의 성향자들이 수직 개인주의 성향자들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력전략에서는 문화성향 집단간 차이가 없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회피, 지배, 양보전략 모두에서 남학생이 높으며 협력전략의 경우 역시 문화성향 집단처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문화성향과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별 이원분산분석

	변량원	총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회피전략	문화성향	114.93	3	38.31	4.59**
	성별	66.74	1	66.74	7.99**
	성별×문화성향	24.15	3	8.05	.41
	오차	4051.53	485	8.35	
지배전략	문화성향	458.47	3	152.82	16.69***
	성별	92.14	1	92.14	10.06**
	성별×문화성향	12.30	3	4.10	.44
	오차	4393.36	480	9.15	
양보전략	문화성향	104.47	3	34.82	3.55*
	성별	82.25	1	82.25	8.39**
	성별×문화성향	70.89	3	23.63	2.41
	오차	4722.45	482	9.79	
협력전략	문화성향	36.41	3	12.13	1.74
	성별	12.88	1	12.88	1.85
	성별×문화성향	29.47	3	9.82	1.41
	오차	3334.12	479	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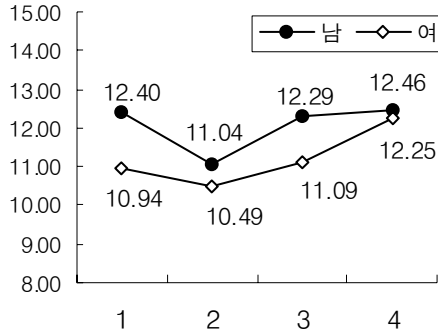
\*p<.05 \*\*p<.01

<표 4> 문화성향과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별 기술통계량과 사후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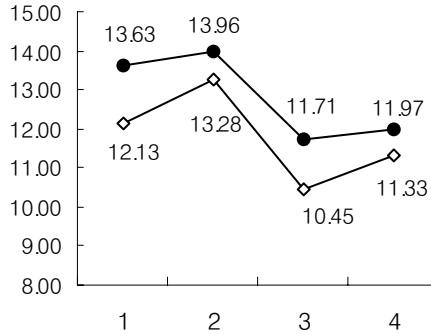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Scheffe( $\alpha = .05$ )
회피전략	성향	수평개인	56	11.59	3.18	수직집단 > 수직개인
		수직개인	84	10.79	2.79	
		수평집단	248	11.66	2.99	
		수직집단	105	12.38	2.71	
	성별	남학생	255	12.12	2.83	남 > 여
		여학생	239	11.16	3.01	
지배전략	성향	수평개인	55	12.78	3.35	수평개인, 수직개인 > 수평집단, 수직집단
		수직개인	81	13.65	3.01	
		수평집단	248	11.05	3.09	
		수직집단	104	11.72	2.86	
	성별	남학생	255	12.43	3.02	남 > 여
		여학생	239	11.26	3.28	
양보전략	성향	수평개인	56	9.57	2.98	수평집단 > 수직개인
		수직개인	83	9.34	3.21	
		수평집단	247	10.42	3.21	
		수직집단	104	10.38	3.19	
	성별	남학생	255	10.67	3.20	남 > 여
		여학생	239	9.50	3.09	
협력전략	성향	수평개인	53	12.90	2.85	차이없음
		수직개인	84	13.39	2.92	
		수평집단	246	13.78	2.58	
		수직집단	104	13.38	2.41	
	성별	남학생	255	13.68	2.56	차이없음
		여학생	239	13.42	2.8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하였듯이 문화성향에 따라 중학생들의 갈등해결전략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문화성향이 지니는 특성 또한 그대로 반영해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결과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의미와 시사점은 논의에서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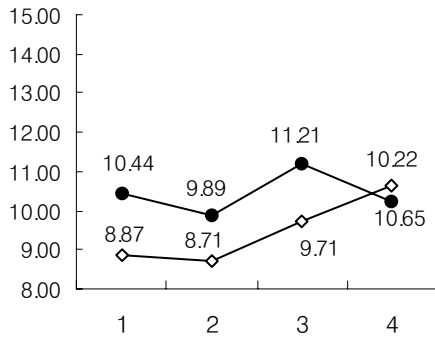
문화성향(4)×성별(2)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결과를 탐색하기 위해 집단을 교차하여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 1]-[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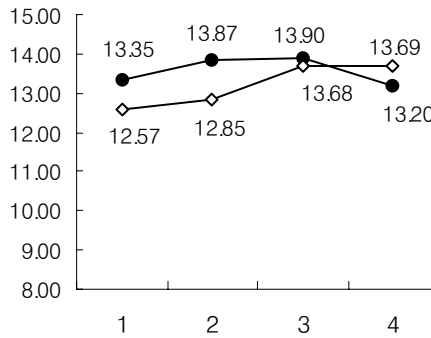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성향×성별에 따른 회피전략 점수분포



[그림 2] 문화성향×성별에 따른 지배전략 점수분포



[그림 3] 문화성향×성별에 따른 양보전략 점수분포



[그림 4] 문화성향×성별에 따른 협력전략 점수분포

주. 1 = 수평 개인주의, 2 = 수직 개인주의  
3 = 수평 집단주의, 4 = 수직집단주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의 갈등해결전략과 문화유형 성향별 집단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향이라는 측면에서 수평 개인주의자들의 경우 모든 전략점수에서 대체로 남녀간 차이가 두드러지나, 집단주의자들의 경우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모든 유형에서 양보전략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협력전략은 높음을 보이고 있음도 특기할만하다.

### 3. 문화성향 유형과 갈등해결전략 유형간의 대응

연구문제3에서는 앞선 연구문제1, 2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심변인인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의 상대적인 점수를 이용하여 각 유형별 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문화성향에 따른 집단별로 갈등해결전략의 채택에 특징적인 대응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유형별 빈도를 산출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문화성향 유형별 집단과 갈등해결 전략 유형별 집단간 교차분석

전략	전체	문화성향 집단				x 2	
		수평개인	수직개인	수평집단	수직집단		
전체	회피	71(18.0)	7(16.3)	3(4.5)	40(20.1)	21(24.7)	46.98***
	지배	94(23.9)	18(41.9)	30(44.8)	27(13.6)	19(22.4)	
	양보	37(9.4)	1(2.3)	6(9.0)	18(9.0)	12(14.1)	
	협력	192(48.7)	17(39.5)	28(41.8)	114(57.3)	33(38.8)	
	전체	394(100)	43(100)	67(100)	199(100)	85(100)	
	x 2	135.04***	18.67***	36.22***	115.55***	10.77*	
남학생	회피	42(21.4)	3(16.7)	1(2.6)	21(24.1)	17(32.1)	24.34**
	지배	50(25.5)	8(44.4)	17(44.7)	13(14.9)	12(22.6)	
	양보	21(10.7)	1(5.6)	5(13.2)	10(11.5)	5(9.4)	
	협력	83(42.3)	6(33.3)	15(39.5)	43(49.4)	19(35.8)	
	전체	196(100)	18(100)	38(100)	87(100)	53(100)	
	x 2	40.61***	6.44	18.84***	30.66***	8.81*	
여학생	회피	29(14.6)	4(16.0)	2(6.9)	19(17.0)	4(12.5)	30.43***
	지배	44(22.2)	10(40.0)	13(44.8)	14(12.5)	7(21.9)	
	양보	16(8.1)	0(0.0)	1(3.4)	8(7.1)	7(21.9)	
	협력	109(55.1)	11(44.0)	13(44.8)	71(63.4)	14(43.8)	
	전체	198(100)	25(100)	29(100)	112(100)	32(100)	
	x 2	103.29***	3.44	18.31***	90.21***	6.75	

\*p<.05 \*\*p<.01 \*\*\*p<.001

〈표 5〉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 구별없이 전체대상의 결과를 보면, 문화성향이 무엇으로 분류되던지 전체적으로 협력 전략유형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녀로 구별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집단별로 나타난 두드러진 차이를 보면, 첫째 전체집단에서 개인주의 성향자는 집단주의 성향자에 비하여 지배전략유형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현저하였다(수평개인 41.9%, 수직개인 44.8%, 수평집단 13.6%, 수직집단 22.4%). 이는 남학생(수평개인 44.4%, 수직개인 44.7%, 수평집단 14.9%, 수직집단 22.6%)과 여학생(수평개인 40.0%, 수직개인 44.8%, 수평집단 12.5%, 수직집단 21.9%)으로 구분할 때 도 유사한 경향이였다. 둘째, 집단주의 성향자 중 특히 수평집단주의 성향자의 경우, 타 문화성향 집단에 비하여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전체대상 57.3%, 남학생 49.4%, 여학생 63.4%). 셋째, 집단주의 성향자는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비율도 개인주의자에 비하여 높는데 특히 남학생의 경우 그러하였다. 넷째, 집단주의 성향자에서 수평집단주의 성향자와 수직집단주의 성향자의 차이는 수평집단주의자가 협력전략이나 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하여, 비록 현저성이 아주 높진 않으나 수직집단주의자는 협력, 회피전략 뿐만 아니라, 지배전략, 양보전략까지도(특히, 여학생) 어느 정도 골고루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결과는 연구문제1, 2에 따른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및 문화성향에 따른 집단차이를 보다 구체화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논의에서 이를 정리하기로 한다.

#### IV.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교우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성을 탐색하고 문화성향에 따른 집단별로 채택하는 주요 갈등해결전략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차례로 진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남녀 중학생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대한 탐색은 그 자체로 한 사회내에서 세태의 흐름에 따른 집단성원들의 가치관, 자기관, 규준 등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단독주제로 연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예, 국내의 경우 양범규, 1996; 한규석·신수진, 1999; 오나라, 2000). 예를 들어, 한규석과 신수진(1999)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46.0%)로 변화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집된 중학생의 50.4%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최태진, 2004a)에서도 고등학생의 54.92%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으로 분류된 것과는 유사한 비율이다. 이러한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사회는 -중고등학생까지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비록 집단주의의 역기능 또한 있지만) 집단성원의 조화, 공동체적 결속을 보다 우선시하는 긍정적인 풍토가 기본성향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갈등해결전략의 사용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1, 2에 따라 갈등해결전략과 문화성향간의 상관분석 및 문화성향별 집단에 따라 갈등해결전략별로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째, 지배전략은 집단주의 성향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반면, 개인주의 성향과는  $r=.36$ 정도의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다. 반면 협력전략은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성향과 높은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특히 여학생의 경우,  $r=.42$ ). 또한 분산분석의 결과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에는 전략에 따라 유의한 점수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문화성향과 갈등양상간의 관계성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의 지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개인주의 성향자들은 개인의 욕구와 목표가 주관심사이기에 관계성보다는 결과를 추구하며 이는 갈등장면에서 보다 경쟁적이거나 지배적인 스타일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Rahim(1992)의 견해, 집단주의 성향자들은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에 고도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과 회피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견해(Ting-Toomey, 1988; Trubisky, Ting-Toomey & Lin, 1991)와 일치한다. 문화간 비교의 관점에서, Fox와 Taylor(2003)은 서로 다른 문화는 다른 문화에 비하여 보다 특정한 양식을 갖는다면서, 서구의 경우 결과를 보다 강하게 강조하며, 아시아 쪽은 과정과 관계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친사회적 전략 혹은 절충이나 협력을 더 많



이 사용한다는 견해(예, Chung & Asher, 1996; 배선영, 1999)는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지적인데 적어도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는 이러한 지적과 유사하였다(분산분석에서는 차이없음). 이는 여자들의 경우 보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지적(Cross & Madson, 1997; Madson & Trafimow, 2001)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성차나 혹은 역으로 문화성향을 통제하고 갈등해결전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2의 결과는 일차원적인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간의 비교를 넘어 수평적 혹은 수직적 차원이 더해진 집단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1)회피전략의 경우 수직적 집단주의자가 수직적 개인주의자 보다 높았으며, (2)지배전략은 수평적, 수직적 개인주의자가 수평적, 수직적 집단주의자 보다 높고, (3)양보전략은 수평적 집단주의자가 수직적 개인주의자 보다 높았다. 이들 결과는 각 성향들이 지니는 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피전략에서 수직적 집단주의자들이 높은 점수를 보인 이유는 '사람들간의 위계, 불평등을 인정하되 집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조화를 지향'(Triandis, 1995, 2001)하기 때문이며, 수직적 개인주의자들이 낮은 점수를 보인 이유는 '사람들간의 위계, 불평등을 인정하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대인관계 보다는 자신의 목표, 관심사를 지향하는 성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 개인주의자들은 특히 성취지향적이며 경쟁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인간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기꺼이 지배하려한다(Singelis et al., 1995; Triandis, 2001). 이러한 경향은 지배전략 점수가 4유형간 가장 높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평적 집단주의자는 지배전략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그리고 양보전략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는데, 이 역시 '사람들간의 동등성, 평등을 인정하며 집단의 조화를 지향하는 수평적 집단주의자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면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 사례로 Chiu와 Kosinski(199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중국인의 4가지 가치관(유교적 노동역동성(Confucian work dynamism), 통(integration), 도덕적 생활(moral discipline), 仁(human-heartedness))이 갈등해결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는데, 4개 가치관 모두는 갈등해결 스타일과 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Chiu와 Kosinski는 이들 중국인의 가치들이 결국 중국인들을 덜 경쟁적이며 협동적으로 만든다고 진술한 바 있는 것이다.

연구문제3에 따른 분석결과는 연구문제 1, 2의 결과를 함축해 주었다. 개인주의 성

향지는 지배전략유형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현저하였으며, 수평집단주의 성향지는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평적 집단주의자가 협력전략이나 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하여, 비록 현저성이 아주 높진 않으나 수직집단주의자의 경우 협력, 회피전략 뿐만 아니라, 지배전략, 양보전략까지도(특히, 여학생) 골고루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의 의미 및 이에 따른 논의는 개인의 갈등해결전략은 문화성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한 본 연구의 가정이 타당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Fletcher, Olekalns와 Cieri, (1999)는 문화는 관계성의 유형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기대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한 사회내에서 개인들이 지니는 문화성향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국내의 경우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관련하여 소외감(한성열·이홍표, 1995), 사회적 고립감(박경란, 2000), 학교생활적응과 정신건강(최태진, 2004a) 등의 관련연구는 있으나 갈등이나 갈등해결양상과 관련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만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반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학교의 중학생 대상의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고교생이나 광범위한 지역적 표집을 통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갈등해결전략과 관련하여 자기보고식 평정형 척도를 사용하였기에 문화성향과 관련하여 탐색적 성격이 강하다. 갈등해결전략의 경우 방법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갈등상황과 관련한 모의장면을 다수 설정하여 서술식으로 해결방식을 기입하게 함으로써 갈등해결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론적 및 실제적인 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시사점을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이론적인 면에서 갈등해결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관계변인의 폭을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서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선행연구들의 경우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애착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화성향변인

은 한 개인의 행동, 동기, 정서, 인지, 사고를 이끄는 원천(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태진(2004a)은 문화적 성향이란, ‘내적작동모델’로 일컬어지는 애착과 대조하여 ‘문화적작동모델’(cultural working model)로 표현한 바 있다. 문화성향 혹은 문화가치를 설정한 보다 많은 연구들이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실제와 관련하여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자나 교사는 교우간의 갈등이나 혹은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인한 상담 장면에서 당사자들의 문화성향을 평가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학생 이해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비교적 최근에 송은미(200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갈등해결전략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가해집단과 피해집단 모두 지배전략이 가장 높았으며, 피해집단은 절충 및 협력전략이 가장 낮았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연구(Owens, Daly, & Slee, 2005)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갈등해결전략을 연구하였는데, 피해경험이 더 많을수록 분노표출 방식을 더 선호하였으며 절충적인 방법의 사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성향을 평가해보는 것은 가해·피해자의 특성과 갈등표출방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성향은 사고성향, 자기관, 행위의 귀인성향, 대인성향, 삶의 목표 등과 같이 인지적·정의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 문화성향 측정 자료를 사용하여 문화성향이란 무엇이며 서로 상대방의 성향과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격진단에 기초한 충동성과 지배성이 어떠한다는 식의 부정적 평가가 개입된 개념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 서로 서로가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있는지를 가르치고 또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갈등이나 따돌림 현상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강상무(1999). 심리극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아강도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2000). 우리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소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2002). 형제의 지위변인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은미(2003).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 갈등 해결전략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범규(1996). 고등학교 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개인주의 가치지향과 집단주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나라(2000). 한국 대학생과 부모의 세대갈등과 세대차이 지각: 토착심리학적 모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1995). 충동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1997). 학교폭력 실태와 그 예방. 대한의사협회지, 40(10), 1268-1273.
- 이은혜·고윤주·오원정(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 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5-121.
- 이희영·천태복(2005).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17(2), 228-239.
- 장휘숙(2000).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1), 88-106.
- 정미숙(2001). 여고생의 개인주의 가치성향과 자아개념의 상관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현(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공호(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5(1), 104-139.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 최창욱·김진호(2004).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Leadership life skills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2), 509-539.
- 최태진(2004a).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부모애착과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상호관계와 그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117-152.
- 최태진(2004b). 상호의존형 진로 의사결정 유형 척도의 개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 *상담학연구*, 5(3), 647-666.
- 하지원(2004).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정서조절능력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갈등원천, 해결유형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 개발원.
- 한규석(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규석·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93-310.
- 한규석·오점조(1993). 아동의 교류양상에 대한 분석: 집단주의 개인주의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185-197.
- 한성열·이홍표(1995).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 113-129.
- Alexander, K. L.(2000). *Prosocial behavior of adolescence in work and family life: empath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ith parents and pe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Ohio State University.
- Chew, I. K. H. & Lim, C.(1995). A Confucian perspective on conflict resol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6, 143-157.
- Chiu, R. K., & Kosinski Jr, F. A. (1994). Is chinese conflict-handling behavior influenced by chinese valu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1), 81-90.
- Chung, T., & Asher, S. R.(1996). Children's goal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 situation. *Merril-Palmer Quarterly*, 42(1), 125-147.
- Collins, W. A., Laresn, B., & Mortensen, N.(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178-198.
- Corcoran, O. K. O., & Mallinckrodt, B.(2000). Adult attachment, self-efficac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3), 473-483.
- Crawford, D., & Bodine, R.(1996).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A Guide to Implementing Programs in Schools, Youth-Serving Organizations, and Community and Juvenile Justice Settings*.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 Cross, S. E., & Madson, L.(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Dekovic, M., & Janssens, J. M. A. M.(1992). Par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Feldman, S. Sl, & Gowen, L, C.(1998). Conflict negotiation tactics in romantic relationship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t*, 27, 691-706.
- Fletcher, L., Olekalns, M., & Cieri, H. D.(1999). *Cultural Differences in Conflict Resoluti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the Asia-pacific Region*. Department of Management working paper in organizational studies.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Fox, D. G., & Tayler, D.(2003). *Conflict Management: Style isn't just for the Catwalks*, <http://www.opsltd.com>.
- Goldenberg, S.(1988). *Hands across the ocean: Managing joint ventures with a spotlight on China and Jap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mmock, G. S., Richardson, D. R., Pilkington, C. J., & Utley, M.(1990). Measurement of conflict in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77-583.

-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England: McGraw-Hill. [차재호·나은영 역(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Hui, C. H., & Triandis, H. C.(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Jensen-Campbell, L. A., Graziano W. G., & Hair, E. C.(1996). personality and relationships as moderators of interpersonal conflict in adolesc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2*, 148-164.
- Kilmann, R. H., & Thomas, K. W.(1974). Developing a forced-choice measure of conflict-handling behavior: The "MODE" instrumen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7*, 309-325.
- Lane, P. S., & McWhirter, J. J.(1992). A peer mediation model: Conflict resolu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hildren.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7(1)*, 15-23.
- Laursen, B., & Collins, W. A.(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y Bulletin, 115*. 197-209.
- Madson, L., & Trafimow, D.(2001). Gender comparisons in the private, collective, and allocentric selv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4)*, 551-559.
- Malloy, H. L., & McMurray, P.(1996). Conflict strategies and resolutions: Peer conflict in integrated early childhood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185-206.
- Markus, H. R., & Kitayama, S.(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endelson, M. J., Goldbaum, S., & Semeniuk, J.(1995).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Ohbuchi, K-I., Fukushima, O., & Tedeschi, J. T.(1999). Cultural values in conflict management: Goal orientation, goal attainment, and tactical decis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51-71.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Owens, L., Daly, A., & Slee, P.(2005). Sex and age differences in victimiz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among adolescents in a south Australian school. *Aggressive Behavior*, 31, 1-12.
- Rahim, M. A.(1983). A measure of style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Rahim, M. A.(1986). referent role and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 79-86.
- Rahim, M. A.(1992). *Measuring Conflict in Organization*. Westport, CT: Parage Publisher.
- Sharp, S., & Smith, P. K.(1994). *School Bullying: Insights and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Ting-Toomey, S.(1988). Intercultural conflict styles: A face-negotiation theory. In Y. Kim & W. Gudykunst (Eds.), *Theor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13-235, CA: Sage.
- Triandis, H. C.(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s*, 96, 506-529.
- Triandis, H. C.(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xford: Westview.
- Triandis, H. C.(2001),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9(6). 907-924.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 Gelfand, M. J.(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74, 118-129.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1985). Allocentric versus ide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Trubisky, P., Ting-Toomey, S., & Lin, S. I.(1991).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self-monitoring on conflict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 65-84.

## ABSTRACT

### A Particular Strategy for Conflict Resolution of Peer Adolescents According to Cultural Disposition

Choi, Tae-Jin\*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cultural disposition and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nd to determine whether differences exist among subgroups divided by cultural disposition in term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In order to obtain these research objectives,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collectivism was used as a framework to detect cultural disposi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557 middle school students who completed Scale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Friendship and th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two-way ANOVA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according to research question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ile dominating strateg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dividualistic cultural disposition but was not or very lowly associated with collectivistic cultural disposition, integration strategy was relatively highly associated with collectivistic cultural disposition. Second, the results of comparing subgroups according to cultural disposition showed that 1) vertical collectivists used more avoiding strategy than vertical individualists, 2) horizontal or vertical individualists used more dominating strategy, 3) horizontal collectivists used more obliging strategy than vertical individualists. Third, results of analyzing cultural disposition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using cross-tabulation showed individualists were most frequently classified into dominating strategy and horizontal

---

\*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ctivists were most frequently classified into compromising strategy. While horizontal collectivists used integration and avoiding strategy, vertical collectivists used a variety of strategies(especially female) including integration, avoiding, dominating and obliging strategy. Finally,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with comments on limitation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peer conflict,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cultural disposition,  
individualism-collectivism

투고일 : 2월 24일, 심사일 : 5월 30일, 심사완료일 : 6월 20일

